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숲 정 이

2007년 1월 28일
(다해)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793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catholic.or.kr E-mail | catholicl14@hanmail.net

강론 …

또무슨 할 일이 있다고…

권이복 신부
(우아동 성당 주임)

경 000 집사 000 은행 부행장 취임 감사 예배 축 온 동네 경사났다.

〈그리스도의 귀향!〉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사천년을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 고을에 나셨으니…. 그런데,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 몰았다. 그 고을은 산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 하였다.' (복음)

내일 모레면 사제 생활 만 28년!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보고 만지며 살아 왔다. 방위병에서 장군까지,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뱅이에서 몇 천억 심지어 조 를 얘기하는 갑부, 이름석자도 못 쓰는 사람부터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석학까지…. 그래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달아 확신하며 공감하는 진리가 하나 있으니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 준다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 독서)라는 것이다.

사랑-이는 아는 것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이는 비천하고 미약하며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몸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것이다.

주님!

이제 저는 압니다.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룻밤 쾌락의 부산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으로부터 당신 안에 있었고 지금도 당신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살수밖에 없는 또다른 당신' 임을 압니다.(제 1독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때가 되면 당신이 나를 보고 아시듯 나도 당신을 보고 알 것입니다. (제 2독서)

이렇게 당신을 알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나를 아는 것, 이것이 곧 당신께 대한 나의 사랑이며 나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여 즐거워하고, 또 괴로워하며 마냥 뒹굴고 살아야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고 또 무슨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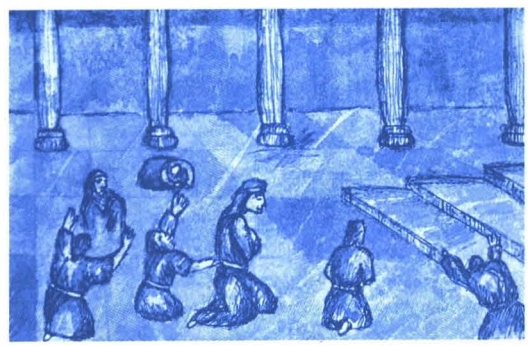
숲머리 생각

한병기(프란치스코)

목숨보다 귀한 것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저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 4,16)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살기 위해서이다. 생명을 부지하는 삶이 없이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재산이나 명예는 물론 도덕과 덕행도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와 서글픈 사연일 뿐이다. 지상적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 이러한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삶을 포기하고서 열리는 새로운 장이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을 찾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이 사는 쪽으로만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사방이 닫히고 죽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왕후가 된 에스테르의 영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하만의 위세에 모르도카이가 불복하자 결국 유다인들 모두가 전멸될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민족적 재앙을 앞두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후 한 사람 뿐이라고 했다. 바로 이 날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올려 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에스테르는 힘없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으나 모르도카이는 그것을 비겁이라 했다.

왕후 에스테르도 생사의 기로에 섰다. 목숨의 부지를 위해 눈을 감을 것인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이 결정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버릴 수 없다. 에스테르의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유다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사흘 동안 단식 기도를 올려 주십시오. 저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겠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왕후였지만 에스테르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을 한다. 사는 길이야 있겠지만 하늘의 뜻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기꺼이 순종을 한다. 백성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삶에 요구되는 길은 더 중요한 것이다. 생명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이다.

훗날 예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내영혼의 리필"

사기꾼, 억울함, 상처, 소외감, 걱정, 두려움...

최근 몇 달 동안 남편과 내가 겪고 있던 마음이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 그 시간들을 대변하기엔 충분치 않다. 한마디로 황폐한 '광야' 였다. 이 상황을 벗어나보려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보고, 내 안의 것들을 함께 쓸어버리고 싶어 대청소를 하기도 했고, 일부러 코믹영화를 보며 웃기도 했지만 흐느낌으로 남았다. '울음을 웃고 있다' 고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울했다. 내 안의 감정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고 마치 만만한 화풀이 상대를 찾고나 있었던 양 터지고 말았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왜 너희는 긴장조차 하지 않는 생활을 하니?" 하면서 고3이 되는 딸을 겨냥하게 되었고. 불퉁거림과 어이없는 비웃음으로 항변하는 딸에게 자존심조차 상해버린 나는 어질러진 방을 트집 잡아 책상위의 물건들을 던지고 쓸어버리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가슴으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미 내 행동은 컴퓨터를 비롯한 책들까지 다 엎어버린 뒤였다.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씩씩거리며 방을 나와 식탁에 앉아있는데, 읽던 책 '내 영혼의 리필' 이 보였다. 지난달 마니또가 선물해줘서 읽고 있었다. 한줌 집어 넘기니 우연찮게도 '분노는 성숙한 감정이다.' 는 소제목이 나왔다. 분노란 분명 사랑과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라는데, '성전 뜰에서 환금상 들을 내치셨을 때 탁자를 뒤집어엎으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고 예수님의 분노를 말 하고 있었다. 조금 전의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었는지 이 대목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성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에 대한 가르침은 내 분노와는 차원이 달랐다. '분노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때에만 정당화 된다.' 고 한다.

내 분노는 결국 내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두 시간이 넘게 나를 붙들고 얘기했다. '어디에서나 사랑을 찾아라, 함께함을 기뻐하라,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라.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라,' 고 하면서…. 오히려 날 용서하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시간은 분위기 어색하게 지났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감추려고 세수하러 욕실로 뛴다. 저녁 기도를 준비하려고 막내는 촛불을 준비하고, 오빠는 어지럽혀진 동생 방을 분주하게 정리한다. 미안함, 고마움, 부끄러움, 소중함, 이런 것들로 내 가슴은 벅차오고, 아침나절까지도 헤매던 내안의 광야는 이미 저만치 물러서고 있었다. 남편의 코트를 받을 때 꼭 쥐어진 듬직한 손에 땀에 밴 묵주가 호주머니에서 함께 빠져 나왔다. 순간,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또 얼마나 미안했고 또 감사했는지 모른다.

내 황폐해진 영혼에 촉촉한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는 분, 늘 '내 영혼에 리필' 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글 : 김숙희(안젤라), 그림 : 황의성 (세례자 요한)

입당송 시편 106(105),47

주님 저희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시편 71(70), 1-2.3-4ㄱ.5-6ㄴ.15ㄱㄴ과 17 (◎ 15ㄱㄴ 참조)

◉ 주님, 저의 입은 주님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2독서 1코린 12,31-13,13(또는 13,4-13)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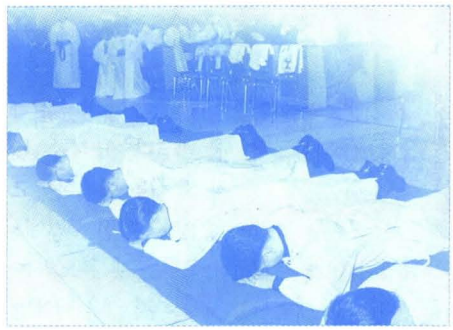
◉ 알렐루야

복음 루카 4,21-30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주님의 얼굴을 주님 종 위에 비추시고, 주님의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007년도 교구 사제 및 부제 서품식



온 교구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교구는 지난 1월 18일(목) 주교좌 중앙 성당에서 사제 및 부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사제 7명과 부제 3명을 탄생시켰다.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수품자의 가족과 각 본당에서 온 축하객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진행된 서품식은 참석한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제 · 부제 배출 본당에 좌석 표를 분배하여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이병호 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된 서품식은 사제 · 부제 직무에 대한 주교님 훈시와 사제 · 부제 서품자 직무수락 및 순명서약, 안수와 축복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하느님의 일꾼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 사랑, 절제를 주는 성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2부 축하식에서는 신학교 선 후배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고 축사가 이어졌다. 평신도를 대표하여 서동호 평협 회장은 "성품성구를 늘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양들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답사를 한 공현식 신부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사제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신현숙, 오안라 기자|

‖ 이재후(토마스) · 서용복(토마스) 신부 은퇴 미사 ‖

삼례 성당 주임 이재후(토마스) 신부 은퇴미사가 1월 21일 오후 3시 삼례성당에서 봉헌됐다. 이재후 신부 주례로 동기 및 선후배, 아들사제 등 50여명의 사제들이 합동으로 봉헌한 이날 은퇴미사에는 6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후 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사제는 첫째 강론준비, 둘째 떠날 준비, 셋째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34년간의 사제생활을 해왔는데 강론은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꼈고, 은퇴 명령을 받고 생각해 보니 떠날 준비, 죽을 준비는 물론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모두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는 삶만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생활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노송동 성당 주임 서용복(토마스) 신부 은퇴미사가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노송동 본당에서 봉헌됐다. 서용복 신부 주례로 동기 및 선후배 사제, 아들사제 합동으로 봉헌된 미사와 기념식 오찬 등으로 진행된 이날 은퇴미사에는 6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미사 강론에서 서용복 신부는 "41년간의 사제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40년이라는 세월이 길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짧았다"며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입으로만 살아온 것 같고, 잘한 것은 시간 하나만큼은 99.9%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사제생활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영 기자|

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 7777 / 018-648-7777

유* 사 랑 외 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아 동 입 양 상 담 및 후 원 상 담
문의 :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茶(다례) 수강생 모집
생활차반 6개월, 생활다례,
전통다례, 풍류다례, 말차다례
모집기간 : 1월~2월
개강 : 3월
장소 : 루갈다원(한옥마을 내)
문의처 :288-3494
정 루 갈 다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 과
치질 · 변비 · 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종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익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라)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새사제 7명 첫 미사 봉헌

지난 1월 18일(목) 사제서품을 받은 공현식 신부(바오로 · 전동 성당), 연규영 신부(아우구스티노 · 황등 성당), 정세진(토마스 · 용안 성당), 김종성(베드로 · 나운 2동 성당), 이용재(요셉 · 호성동 성당), 황규진(세례자 요한 · 월명동 성당), 소재나(가브리엘 · 서일 성당) 등 7명의 새 신부 첫 미사가 1월 19일(목) 출신 본당에서 선배사제, 신학생, 수도자, 신자등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봉헌되었다.

사제 서품을 받은 공현식(바오로) 신부의 첫 미사가 1월 19일(금) 오전 10시 전동 성당에서 있었다. 2층 회랑까지 빼곡할 정도로 본당 신자들은 물론 타 본당 신자들까지 모인 가운데 집전된 미사는 많은 선배 신부들과 동료, 후배 신학생들의 축하가 있어 더욱 빛이 났다. 더욱이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형제(공현성 신부)를 하느님께 나란히 사제로 봉헌하는 자리여서 감동을 더해 주었다.

황규진 신부의 첫 미사 집전이 지난 1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월명동 성당(주임=유종환 신부)에서 군산지구 신부를 비롯한 20여명의 신부와 수녀 그리고 5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황규진 신부는 "보잘것없는 저를 사제로 불러주시고 허락해주신 하느님과 주교님, 그리고 선배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장, 부모님과 가족들, 아버지 신부님 그리고 월명동 성당 교우 등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축하식은 꽃다발 증정, 영적 예물 증정, 성가대 축가, 신학생 축가로 진행되었고 황신부는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에게 안수를 해줬다. |길용운 기자|

사제 서품을 받은 김종성(베드로) 신부의 첫 미사가 1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나운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에서 봉헌되었다. 군산지구 사제들을 비롯한 선배 사제들과 신학생, 수도자, 나운2동 신자들과 교구의 많은 신자들이 함께한 이날 미사는 하느님께서 새 사제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헌되었다. 김종성(베드로)신부는 사제가 되어 첫 미사를 봉헌하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 하는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 갈 것을 다짐했다. |오안라 기자|

‖ 가톨릭 미술가회 모임 ‖

지난 1월 14일(주일) 금마 성당에서 가톨릭미술가회(지도=현유복 신부) 모임이 있었다.

회원 13명이 모인 가운데 미사를 시작으로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전시회(예술회관 5월 25일~31일) 개최를 결정하고 교구내 학생들의 사생대회 개최(10월중 요안 루갈다제 때) 및 일반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가톨릭 미술대전 공모전도 기획했다. 회원들은 가톨릭센터 내에 미술가회 사무실겸 실기 연구실을 확보해 가톨릭 미술문화를 연구하여 교회미술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으며, 장기적 계획으로 미술문화 강좌를 개설 신자들에게 미술이론 및 실기를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함께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홍보국 정리|

‖ 순창 성당 1일 피정 ‖

순창 성당(주임=송호석 신부)은 2007년도 사목회 임원 및 제단체 임원들과 쌍치 공소에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 와 '성체 성사와 봉사의 삶' 이라는 주제로 이상덕(이사악) 선교사를 초빙하여 1월 20일(토) 1일 피정을 실시하여 임원들의 신앙심 고취와 함께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홍보국 정리|

‖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신년하례미사 ‖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지도=김광태 사목 국장 신부, 단장 강상근)는 지난 1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중앙 성당(주임=김동준 신부)에서 '레지오마리애 정신회복 2007년 희망의 해' 를 맞이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공적이 있는 평의회와 단원에 대한 시상과 이병호 주교의 집전으로 하례미사를 봉헌했다. 주교님상은 우수평의회로 어린양 찾기는 미룡 승리의 여왕 꾸리아, 잃은 양 찾기는 나운2동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단원 확보는 용머리 황금 궁전 꾸리아, 성경 완독은 덕진 성모 승천 꾸리아, 가정 기도는 함열 그리스도왕의 모후 꾸리아가 각각 수상했다. |길용운 기자|

‖ 오수 성당 새 사제관 축복식 ‖

오수 성당(주임=서광석 신부)은 지난 1월 7일(주일)에 조정오 총대리신부외 60여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 사제관 축복식을 가졌다. 이날 총대리 신부의 미사 접전으로 시작하여 미사가 끝난 후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새 사제관 준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홍보국 정리|

교구장 일정

• 독일 · 스위스 견진 사목방문
1월 26일(금)~2월 4일(주일)

미사 · 행사 · 모임

• 신학생 현장체험 세미나
1월 29일(월)~2월 1일(목) 해월리

• 12차 신입 교리교사학교
1월 29일(월)~31일(수) 해월리

• 복지병원 후원회 월례강의와 미사
1월 29일(월) 오후 2시성바오로 복지병원
차량운행 : 1차-낮 12시
2차-오후 1시 20분 중앙성당 앞

• 군산 사제 양성후원회 월례미사
1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2월 1일(목) 오전 10시 덕진

• 성모기사회
2월 3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가톨릭 문우회 월례회의
2월 3일(토) 오후 3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2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 군산 하나회 미사
2월 4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포콜라레 모임
2월 4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교육관

• 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모임
2월 5일(월)오후 7시 센터내 온가
문의 :010-4608-4599 박종구

교육 · 피정 · 연수

• 청년성서 41차 마르코 연수
2월 1일(목)~4일(주일) 나바위

• 7차 젊은이 성령 묵상회
2월 2일(금)~4일(주일) 해월리

• 빛따라 기자단 양성 연수
2월 3일(토)~4일(주일) 해월리

• 레지오 2단계 교육
2월 3일(토)~4일(주일) 천호

• 가정분과 · 여성분과위원 교육
2월 4일(주일) 오후 1시 센터

기타

• 전주교구 가톨릭합창단원 모집
기간 및 대상 : 2007년 2월 4일까지
전주교구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오디션 : 2007년 2월 5일(월)
센터 연습실 오후 8시
문의 : 011-638-5346 최만규

• **교구에서는 금상동(구 소리개재, 천주교 묘지)에 성당신축, 납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이며 2007년 1월부터 안치 가능합니다. 교우분들 우선분양(자상 1,2층)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현재 천주교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의 유족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신청장소 : 245-0091 금상동 성당
011-658-8865 사무장

• 작은천사어린이집 직원채용
장애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자격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모집기간 : 1월 31일까지
모집내용 : 특수교사, 보육교사,
운전기사 각 0명
주소 : 익산시 월성동 309-12
문의 : 063-834-7607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
(1/14~1/20)
익명 2,000,000
재경신우회 정병식 10,000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빈첸시오의 집 직원채용
모집내용 :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각 0명
모집기간 : 1월 3일부터~충원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 자필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초본(군경력확인용),
경력증명서, 세례증명서
접수처 :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254-1
문의 : 262-8484 빈첸시오의 집

• 수화봉사자 모집
봉사시간 : 매월 첫째, 둘째 주일
오후 1시~4시
장소 : 군산 나운동 성당(첫째주),
전주 삼천동 성당(둘째주)
봉사내용 : 미사 및 회의 시 수화 봉사
문의 : 임한복 마태오(011-672-6509)

성 명	계시는 곳	가실 곳
공현식(바오로)	새신부	솔내성당 보좌
연규영(아우구스티노)	새신부	서신동성당 보좌
정세진(토마스)	새신부	삼천동성당 보좌
김종성(베드로)	새신부	송천동성당 보좌
이용재(요셉)	새신부	숲정이성당 보좌
황규진(세례자요한)	새신부	호성동성당 보좌
소재나(카브리엘)	새신부	전동성당 보좌

부임 일자: 1월 27일(토) 오전까지

1월-좋은 영화 -사랑의 블랙홀
일 시 : 1월 31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01분 / 관 람 비 : 천원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돌이켜보고 진정한 사랑을 되찾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교 사 모 집
자격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2급
나이 : 20~30대 정도
문의 : 063-324-3555
〈2월에 평가인증 완료 예정임〉
무주 소화어린이집

영상으로 드리는 기도모임
일시 : 2월 6일(화) 오후 7시
장소 : 전주 바오로딸 서원
대상 : 미혼 여성(30대 미만)
성 바 오 로 딸

제 7 차 청년 성령묵상회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마태 28,10)
일시 : 2월 2일(금) 오후 4시~4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소양 해월리 피정의 집
대상 : 모든 젊은이
준비물 : 묵주, 미사 · 세면도구, 성서, 여벌옷 등
참가비 : 6만원(우체국 401984-02-032725 신연주)
문의 : 010-6479-5506 단장 유보영
011-675-1404 부단장 허윤민

* 전주교구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에서도 '숲정이'를 볼 수 있습니다.

김 · 정 · 고 · 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 563-2552 사 무 실 : 564-2044 주임신부 : 김 의 철
유 지 원 : 564-3529 수 녀 원 : 564-6585 사목회장 : 이 면 우
F A X : 563-1782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신입 : 이병연 10만원
2.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동참 합시다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 앞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3. 영세자 첫 고해 : 30일(화) 후7시30분
4. 병자봉성체 : 1일(목)후2시 5. 성체강복 : 1일(목)후7시30분
6. 주님봉헌축일(2월2일) : 제대초 봉헌하실 분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한자루 2,500원
7. 정기총회 : 4일(일) 미사 후 – 사목회임원, 각분과위원, 공소회장, 제단체장, 구역반장 ※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감사헌금 : 이명우, 이인옥 각10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00,100원 ■ 교무금 : 2,230,000원

부 안

주임신부 : 584-1331 사 무 실 : 584-1333 주임신부 : 김 원 중
유 지 원 : 584-1004 수 녀 원 : 584-1332 사목회장 : 조 건 규
F A X : 581-1334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가톨릭센타 신축헌금과 본당개보수 헌금에 정성을 다합시다.
1. 사랑하올모친 꾸리아 : 교중미사 후
2. 공소 가정방문 일정 : 청호–30일(화), 격포–2월1일(목)
능용–7일(수)–>9일(금)까지, 마포–13일(화)–>14일(수)
3. 성체강복, 성시간 : 1일(목) 후7시30분
4. 초봉헌접수 : 사무실(1년동안 제대에 쓰여질 초봉헌과 가정초)
※ 봉헌초가격 : 1자루5,000원, 가정초가격 : 3,000원
5. 성지가지회수 : 11일까지 가져오세요 6. 구정 합동위령미사 예물접수 : 사무실
7. 성심유치원 선배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2월1일(목)1시–>2시30분
※ 대상 : 현재초등1학년–>6학년재학생(성심유치원졸업생) 8. 금주청소 : 7구역
9. 공소미사 : 금주 청호–오전6시, 격포–후7시30분, 차주 전체 공소본당 미사 참석
■ 지난주 봉헌금 : 1,606,340원 ■ 교무금 : 2,266,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 538-0092 사 무 실 : 538-0091 주임신부 : 경 규 봉
유 지 원 : 532-5777 수 녀 원 : 538-0093 사목회장 : 최 월 란
F A X : 538-0094 홈페이지 : http://www.sigidong.or.kr

⊙ 가톨릭센타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시다.
⊙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헌금 실시합니다.
1. 주님 봉헌 축일(2/2) : 초 봉헌 받습니다. 제대초(5,000원), 가정초(2,000원)
2. 등천공소 미사 : 2월 3일(일) 8시 30분
3. 금주모임 : 아브라함회, 베드로회(1/28 일), 성심회(2/1 금), 꾸리아(2/2 토)
4. 금주전례 : 해설 – 하 선남 독서 – 김 광복, 유 정자
5. 차주전례 : 해설 – 박 먼국 독서 – 고 광서, 안 순금
6. 성당청소 : 인자하신 동정녀(1/30 화), 신자들의 도움(2/2 토)
7. 감사헌금 : 유연화(데레사), 김삼채(요셉) 각 5만원
■ 지난주 봉헌금 : 1,625,100원 ■ 교무금 : 1,663,000원
■ 가톨릭센타신축기금 : 677,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 538-0532 사 무 실 : 538-0531 주임신부 : 박 창 신
F A X : 538-0534 수 녀 원 : 538-0533 사목회장 : 진 용 철
본당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jdsd.or.kr

⊙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 있습니다.
1. 금주모임 ① LM 꾸리아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구역(반)회장 모임 – 2월 2일(금) 미사 후
2. 신평공소 미사 : 2월 3일(토) 후8시(본당출발 후7시30분)
3. 유아세례 : 2월 3일(토) 후 5시 주민등록등본 1통 지참(신청 : 사무실)
4.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초 접수 : 사무실, 제대초(5,000원), 가정초(2,500원)
5.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
6. 감사헌금 : 강양례 10만 ※ 감사합니다.
7. 차주모임 : 아브라함회
■ 지난주 봉헌금 : 1,350,000원 ■ 교무금 : 768,000원
■ 센터 신축헌금 : 345,000원

요 촌

주임신부 : 544-0152 사 무 실 : 544-0151 주임신부 : 박 중 신
유 지 원 : 546-3788 수 녀 원 : 544-0153 사목회장 : 구 자 옥
본당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ochon.org

⊙ 우리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감사하는 교우 ③ 기뻐하는 공동체
1. 전신자 성경 공부(29) : 열왕기 상권 전체
2. 2007년도 교무금을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님 봉헌축일(2월2일) 제대초 및 가정초 접수 : 사무실
4. 초,중,고 교리교사 모집 : 수녀원 or 사무실에 연락바람
5. 예비자 입교식 : 3월4일
6. 성가대 반주 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7. 해외 원조 주일 2차헌금 : 오늘
8. 감사헌금 : 최옥주 – 3만,
9. 센타기금 : 최옥주 – 30만, 이정기 – 10만, 김진국 – 5만
■ 지난주 봉헌금 : 1,542,300원 ■ 교무금 : 2,410,000원

줄 포

주임신부 : 581-0242 사 무 실 : 581-0241 주임신부 : 송 영 진
F A X : 581-0241 사목회장 : 박 경 우

1. 제대초 봉헌 받습니다. : 초축복식 – 2월4일
2. 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만석공소미사 : 오늘 오후 3시
4. 2월 차봉사자 : 최준석, 고재월, 강미화, 남궁홍자
5. 특별헌금 : 김미옥(리드비나) 10만
6. 차량구입 헌금 : 안원순(도미니카) 5만, 김옥례(마리아) 3만, 고광석(안토니오) 10만

만 경

주임신부 : 548-9995 사 무 실 : 548-9911 주임신부 : 백 수 현
F A X : 548- 9911 사목회장 : 최 병 순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시편133,1)
1. 금주 ① 꾸리아– 교중미사 후 ② 병자봉성체 31일(수)
2. 차주 ① 해외원조주일2차헌금 ② 친교주일(식사준비)
③ 첫주일 제모임 ④ 예비신자 환영식
3. 예비신자 교리 : 1월말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제대초, 개인초 봉헌 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5. 금주 : 해설– 조미정, 독서– 장영철, 최부덕
6. 차주 : 해설– 양희정, 독서– 임태섭, 강정윤
■ 지난주 봉헌금 : 351,500원 ■ 교무금 : 70,000원

수 류

주임신부 : 544-5653 사 무 실 : 544-5652 주임신부 : 원 종 훈
F A X : 544-5654 사목회장 : 손 영 일

⊙ 새로 부임하신 원종훈(요셉 다미안) 신부님 환영합니다.
⊙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모임 : 꾸리아 – 교중미사 후
2. 차주모임 : 성모회 – 교중미사 후
3. 금주전례 : 해설–문재현, 독서–조상선, 이금자 봉헌–윤만호 부부
4. 차주전례 : 해설–정준환, 독서–강경복, 강기순 봉헌–박종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442,000원 ■ 교무금 : 160,000원
■ 교구신축헌금 : 300,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 571-8202 사 무 실 : 571-8201 주임신부 : 김 봉 술
F A X : 571-8208 수 녀 원 : 571-8203 사목회장 : 박 찬 주

⊙ 성 바오로딸 수녀님과 함께하는 전신자 1일 피정 : 1월 28일(주일)
※ 주제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간–후1시~4시
1. 금주모임 ① 구역장, 공소회장–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2월 3일(토) 후7시
2. 공소미사 : 태인–31일(수), 신기–2월 1일(목) 후7시
3. 주님봉헌축일(2월2일) : 1년동안 사용될 제대초, 제대꽃 봉헌바랍니다.
4. 신입 교리교사학교 : 29일(월)~31일(수), 해월리 피정의 집
5. 청년회 및 교리교사 산행 : 2월 1일(목), 영암 월출산, 전7시 출발
6. 중,고등부 동계 피정 : 2월 3일(토)~4일(주일), 신태인성당
7. 2차헌금 :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8.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 2월 14일(수)까지 예물 받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99,900원 ■ 교무금 : 1,909,000원

신 풍

주임신부 : 544-2272 사 무 실 : 544-2271 주임신부 : 이 동
F A X : 544-2281 수 녀 원 : 544-2273 사목회장 : 임 석 택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모임 : 꾸리아, 한우리(수), 구역장회의(토)
2. 차주모임 : 성모회, 화서회, 대건회, 사목회(토)
3. 공소미사 : 신암(후3시), 차주–용지, 와룡
4. 성체 강복 : 2월 1일(목) 환우 봉성체 – 2일(금)
5. 주님 봉헌축일 : 성당과 가정에서 쓰실 초 봉헌
6.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예물 접수
7. 크리스티나 수녀님 피정(휴가) : 29일 – 2월 9일
8.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 지난주봉헌 685,000원, 누계–68,763,000원
※ 신축헌금 납입에 정성을 다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001,300원 ■ 교무금 : 1,455,000원.

원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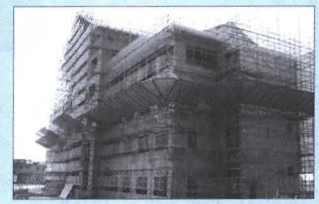
주임신부 : 543-0880 사 무 실 : 543-0881 주임신부 : 정 양 현
유 지 원 : 543-4236 수 녀 원 : 545-2843 사목회장 : 임 정 환

1. 금주 ① 해외원조주일(2차헌금이 있습니다)
② 구역장월례회(교중미사 후) ③ 아브라함회(교중미사 후)
※ 주님봉헌축일을 맞아 미사때 쓰이는 초봉헌을 받겠습니다.
※ 그동안 수고하시고 전출가시는 베드로 카타리나 수녀님과 새로 부임하시는 박수산나수녀님 영육간 건강 하시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2. 차주 ① 꾸리아, 신입교리교사학교(2/7–2/9, 2명참가)
② 성체강복(2/1목) ③ 환자봉성체(2/2금)
3. 승합차운행 봉사자 : 금주–유용산(바오로), 차주–김종운(베드로)
4. 금주전례 : 해설–유용산, 독서–임정환, 이금정, 봉헌–정완중가족
5. 차주전례 : 해설–신재수, 독서–최석기, 김화자, 봉헌–강삼석가족
6. 성당청소 : 초처, 텃골구역
■ 지난주 봉헌금 : 506,200원 ■ 교무금 : 425,000원

7. 사목회 : 2월4일(일) 미사 후
8. 미사안내 : 금주 – 최준석, 고재월, 차주 – 박수자, 김종선
9. 금주전례 : 해설 – 최준석, 독서 – 김기완, 이선녀, 봉헌 – 문창성 부부
10. 차주전례 : 해설 – 고재월, 독서 – 임순선, 이정숙, 봉헌 – 손수덕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36,500원 ■ 교무금 : 230,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1월 20일 현재)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라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창, 금암동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신풍, 용안, 중앙,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나바위, 순창, 나운2동, 고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오수, 여산, 소룡동, 봉동, 월명동, 신동, 나운동, 덕진, 서신동, 숲정이,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영등동, 우림, 조촌동, 원평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무주, 노송동, 함열, 수류, 대야, 솔내, 송천동, 효자동, 삼천동, 연지동 〈60%이하 납부한 본당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학과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07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2년제)

배워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신학과 성경을 쉽게 공부하고픈 신자들에게 전주 가톨릭 신학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학원 교리부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앙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함으로써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의 신앙심화에도 협력합니다. 성서부는 성경전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통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심화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봉사자를 양성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모집학과

학 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면 접 일 시
교리부	교리교육과(주간)	30	면 접	2007. 2. 10(토) 10:00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앙연수과(야간)	30	면 접	
성서부	성서교육과	30	면 접	
	성서연수과	전주 : 주간 50명 / 야간 20명 군산 : 50명, 익산 : 20명		서류전형

2. 지원자격

1) 수도자 및 평신도 남 · 여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2)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 된 자 (단, 성서연수과는 제외)

3. 원서교부와 접수 :

1) 기간 : 2007년 1월 29일(월)~2007년 2월 9일(금) 2) 교부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교구청 1층 안내실, 각 본당 사무실
3) 접수 : 전주가톨릭신학원 (우편접수 가능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3, 전주가톨릭신학원)

4. 2007년 신입생 수업일시 및 장소

학 과			수업장소	수업일시	비 고
교리부	교리교육과(주간)		신학원	월 10:00~16:00	교리교사 양성 과정
	신앙연수과(야간)			월 19:00~21:30	개인 신앙심화 과정
성서부	성서교육과			금 10:00~16:00	말씀의 봉사자 양성 과정
	성서연수과	전주 주간		목 10:00~12:30	성서입문 과정
		전주 야간		목 10:00~12:30	
		군산 분원	나운동 성당	월 10:00~12:30	
		익산 분원	어양동 성당	월 10:00~12:30	

5. 신입생 개강미사 : 2007년 2월 23일(금) 10:30

※ 자세한 문의는 신학원행정실(255-2678)에 문의해 주시고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가톨릭신학원 http://cate-ins.com